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학교	계 수 나 무	발행인 : 백종철 교장선생님 편 집 : 4학년
경기도 시흥시 계수로 203 ☎ 070-797-1973 http://gyesu-cho.es.kr		

쿵덕 쿵덕 계수 학교 축제

12월 4일 ~ 12월 5일 이틀동안 학교 축제를 했다. 12월4일에는 부스체험을 하고, 12월 5일에는 문화 예술 발표회를 했다. 전시는 습식 수채화와 시화, 온작품 결과물, 자연 미술 작품, 한글 프로젝트를 전시 했다. 체험은 총 20개가 있었다. 또 알뜰시장도 같이 했다. 이번 발표회는 작년과 다르게 6가지 이상의 체험을 하면 어묵을 받고, 10가지 이상의 체험을 하면 경품 추천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다 재미있게 체험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12월 5일에는 문화예술 발표회를 했다. 첫 번째 순서는 3학년이 준비한 습식 수채화 영상을 보고, 두 번째로 유치원이 춤을 췄다. 3번째로 3학년이 ‘그대로 멈춰라’라는 노래로 봄뱀커 연주를 했다. 1부의 마지막으로 2학년이 ‘아름다운 것들,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 했다. 조금 쉬다가 2부를 했다. 2부에는 4학년부터 6학년이 화요일 마다 배운 것들을 공연 했다. 2부의 첫 번째로 사진반이 만든 영상을 봤다. 그 다음에 전자 밴드가 공연하고, 모글 리가 된 아이가 하고, 분홍병사가 했다. 마지막으로 습식 수채화와 사진 작품 전시를 하고 모든 학교축제를 마쳤다. 뮤지컬을 한 박준영 학생은 처음에는 긴장이 많이 됐다고 했고, 유치원과 1, 2학년이 생각보다 잘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뮤지컬은 대사실수가 많았지만 박수를 많이 쳐주셔서 힘이 났다고 말했다. 또 많은 학생들은 지루하지도 않고 재밌었다고 했다.

김상지 기자



1학기 문화예술체험활동 발표회 열려

지난 6월 17일 화요일에 계수초등학교 다목적실과 1층 중앙 현관에서 1-6학년 학생들이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는 전시와 공연을 했다. 1-3학년 수공예와 4-6학년 사

진은 중앙현관에서 1시부터 끝날 때 까지 전시를 하였고 공연은 2시부터 다목적실에서 했다.

처음에는 어쿠스틱 밴드에서 자신만의 실력으로 ‘나는 나비’와 ‘렛잇고’를 부르고 악기까지 치면서 실력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엔 전자 밴드 5-6학년 언니,오빠가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4,5,6학년의 뮤지컬인 ‘모글리가 된 아이’, ‘분홍병사’는 연기와 목소리로 멋진 실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끝없는 박수로 노력한 학생들의 결과를 격려하였다.

4학년 우다현 학생은 뮤지컬 공연을 하였을 때 좀 떨렸지만 재미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상건 학생은 밴드 공연을 할 때 떨리는 마음과 들뜬 마음이 자신을 더 열심히 하게 한 것 같다고 하였고 아무리 실수를 해도 박수를 보내주는 학부모님들과, 전교 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전자 밴드부 선생님은 보람되고 뿌듯했다고 했다.

고한슬 기자 ,김수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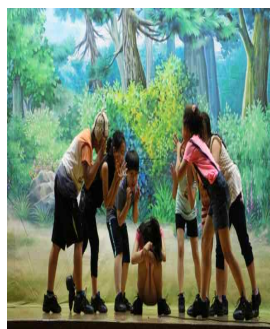
사진부 전시



수공예 전시



어쿠스틱 밴드



뮤지컬 모글리가 된 아이

1학기 농사! 감자 요리로 마무리

지난 4월부터 모든 학년이 여러 가지 모종과 감자를 심어 농사를 지었다.

새로 입학한 1학년들은 6월18일 수요일 아침 활동 시간에 감자를 캐서 삶아 먹었다고 한다.

2학년 아이들은 6월 16일 월요일 아침 활동 시간에 감자를 캐서 통감자와 마늘버터구이를 만들었다.

3학년 학생들은 6월 18일 수요일에 캐서 나누어 가졌다.

4학년 학생들은 6월 18일 아침 활동 시간에 감자를 캐서 감자튀김, 감자전, 감자 볶음밥을 만들어 먹었다.

5학년들은 6월 23일 월요일에 감자를 캐서 치즈 통감자구이, 베이컨 감자구이를 만들었다.

6학년들은 6월 19일 목요일에 감자를 캐어서 요리는 웨지감자, 감자튀김, 버터구이를 만들고 나머지는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각 학년마다 물을 주는 날, 풀 뽑는 날을 정해서 키운 결과 가지, 완두콩, 파프리카, 상추, 오이 등 다양한 농산물을 키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즐거운 한학기 농사를 마쳤다.



농사짓는 모습



수확한 가지와 콩

김석민 기자, 이정훈 기자

기획 기사-통일에 대하여

4학년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학교 신문에 통일에 대한 생각을 신기로 하였다. 그래서 우리학교 6학년과 선생님들께 설문지로 조사를 했고, 통일에 대한 생각을 알게 되었다. 결과는 100%가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이유는 통일을 하면 남북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지구가 평화로워진다. 한민족 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 이산가족이 만나야 한다. 통일을 하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서로 여행도 하고 왕래를 할 수 있다 등의 이유가 있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바라는 점과 그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열차로 유럽까지 여행을 하고 싶은 것, 이산가족 상봉, 경제 협력, 문화 교류, 군사력 감축 등 평화로운 한반도, 잘 어울려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지내는 것이 있었고, 원하는 사람만 군대를 가게 하는 것도 있었다.

또한 “평화는 _____ 이다.” 라는 평화는 행복이다. 평화롭게 살면 모두 행복하니까./ 봄에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이다. 눈을 감고 느껴보면 간질하면서도 웃음 짓게 만들기 때문이다./ 평화는 비빔밥이다.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야 하기 때문이다./ 평화는 평등한 것이다. 서로 평등하고 공평하면 싸울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는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을 때 평화가 깨지는



것 같기 때문이다./ 평화는 공기 이다. 공기처럼 평화는 모든 곳에 존재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평화는 남북통일이다. 통일이 되면 평화로울 거 같아서/ 평화는 함께 행복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손해가 되고 고통이 되면

평화가 아니고 불만이 생기면 혼란스러우니까/ 평화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사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며 산다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는 모두의 행복이다. 사이좋게 지내면 모두가 행복할 것 같기 때문이다. 등의 생각이 있었다. 우리학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다현 기자 정윤정 기자

각 학년별 체험 학습

1학년 현장체험 서울 대공원

새로 입학한 1학년은 6월3일 서울대공원으로 현장체험을 다녀왔다. 왜 서울대공원을 갔냐면 숲 체험을 하러 갔다. 또 숲에 대해 알아보려고 갔다 왔다고 한다. 숲에 대해 잘 알아보고 왔다고 한다.



2학년 현장체험

2학년은 1학년과 같은날 같은 곳으로 현장체험 학습을 다녀왔다. 그렇지만 갔다온 이유는

달랐다. 2학년은 동물을 관찰하고 동물에 대해 글을 쓰기 위하여 다녀왔다고 한다. 나도 같은 활동을 해 보았는데 재미있었다.



3학년 현장체험

3학년은 6월5일 수원화성박물관, 화성행운과 6월19일 북촌생활박물관, 통양문화박물관을 다녀왔다. 수원 화성 박물관과 화성 행운은 주제 통합에서 집에 대해 알아보러 갔다. 북촌 생활 박물관, 통양 문화 박물관은 먹는 것과 집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갔다.



4학년 현장체험

4학년은 6월 5일 5,6교시에 현장체험은 아니고 사회 조사학습을 하러 부천역으로 다녀왔다. 왜 부천역을 갔냐면 도시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으로 찾아서 설문조사를 위해 학생들과 회의하여 부천역으로 다녀왔다. 설문조사를 다녀오고 난 느낌을 이야기 할 때 대부분 학생들이 부끄러웠지만 재미있고 도시의 문제에 대해 생각과 다른 것도 있고, 생각을 직접 들어서 실감 났다고 했고, 설문조사를 잘 마쳤다.



5학년 현장체험

5학년은 6월 25일에 현장체험 학습으로 국립 중앙박물관과 제니스아이스링크를 갔다 왔다고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왜 갔냐면 체험학습을 통해 옛날 도자기를 배우기 위해 갔다 왔고 제니스아이스링크는 스케이트를 배우기 위해 잘 다녀왔다. 나도 5학년 때 가고 싶다.

6학년 현장체험

6학년은 6월 18일에 은하초고기사단과 잡월드를 갔다 왔다. 왜 갔다 왔냐면 직업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고 직업체험을 하기 위하여 갔다 왔다고 한다. 무척 재미있었다.



한울반 현장체험

6월 26일 목요일 부천역 내가 만든 미니 케익 요리문화 체험을 하고 트랜스포머4를 보고 왔다고 한다.



김지유 기자, 조인택 기자

학급 행사 조사

1학년 행사

새로 입학한 1학년은 6월 30일에 생일잔치를 했다. 생일인 학생은 박소현 학생과 김이레 학생이었다. 장소는 1학년 교실이었고 같이 한 사람은 1학년 학생들과 1학년 담임선생님이었다. 생일파티를 재미있게 했고, 7월 3일에 1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이 워터파크를 갈 계획이다.



2학년 행사

2학년 학생들이 6월 24일에 계수초등학교 화단 앞에 벼를 심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고 한다.

또, 6월 25일에 여름 곤충 관찰을 위한 습지 체험을 계수초등학교 숲에서 곤충을 관찰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재미있었다고 했다. 2학년 담임 선생님은 7월 3일에 워터파크를 1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이 같이 갈 예정이라고 한다.



3학년 행사

6월 24일에 계수초등학교 화단 앞 3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이 공동으로 벼심기를 했다.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 모두 힘들었다고 한다. 또 '가방 없는 날'이라는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한다.



4학년 행사

5월 29일에 단오행사를 했다. 단오행사 프로그램은 장명루 만들기, 단오선 만들기였다. 장명루 만들기는 팔찌 만들기였고 단오선 만들기는 부채에 그림 그리기였다.

또한 6월 2일에 4학년 반에서 체육시간에 단오 맛이 씨름대회로 닭싸움, 돼지싸움, 팔씨름을 했다. 닭싸움에서 이긴 학생은 남승우 학생이었고 팔씨름에서 이긴 학생은 박준영 학생, 우다현 학생이었으며, 돼지싸움에서 이긴 학생은 남승우 학생이었다.

또, 6월 20일에 감자요리를 했다. 감자튀김 팀은 조인택, 우다현, 고한솔, 이정훈, 박상건, 김석민, 김진섭, 김수현 학생이고 감자전 팀은 김승현, 정윤정, 김지유, 남승우 학생이었고 감자볶음밥 팀은 박준영, 김상지, 김지성, 김지훈 학생이었다. 모두 재미있게 했다.



5학년 행사

5학년 학생은 5학년 반에서 5학년 학생들이 6월 23일에 감자요리를 했다. 5학년 학생들 모두 재미있어했다.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6학년 행사

6학년은 6월 2일에 감자 요리와 오이소박이 김치 담그기를 했다고 한다.

또 6월 3일에는 단오선 만들기를 했다고 한다.

6학년 학생들은 모두 재미있었다고 했다.



김석민 학생 인터뷰

Q:가장 재미있던 행사는 무엇입니까?

A:문화예술체험 발표회

Q:또 하고 싶은 행사는 무엇입니까?

A:단오 행사

강훈 선생님 인터뷰 (6학년 담임선생님)

Q:반에서 했던 행사는 무엇입니까?

A:감자요리,오이 소박이 김치 만들기(6월 2일), 단오선 만들기(6월 3일)

Q:왜 그것을 하였습니까?

A:평소에 안하던 일어서

Q:또 하고 싶은 행사는 무엇입니까?

A:오이 소박이 김치 만들기

김지유 기자, 조인택 기자

2014 브라질 월드컵 설문 조사

2014년 6월 26일 계수초에 재학중인 전교생 중 31명을 대상으로 월드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왜냐하면 올해가 월드컵이어서 월드컵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이기 때문이다.

설문지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당신의 월드컵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에 많았던 대답은 '재미있고 열정을 가지고 뛰는 경기'였습니다.
2. '몇 년도 월드컵이 제일 좋았습니까?'는 압도적으로 2002년 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3. '여러분의 축구란?'에서는 재미있고 활동력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라는 대답이 많았는데 좋은 스포츠 정신 같습니다.
4. '우리나라가 몇 강까지 갈 것이라 예상되십니까?'에서는 본선 탈락이 거의 만장일치였는데 실제로 맞았습니다. 냉철한 판단 감사드립니다.
5. '월드컵 중 인상깊은 장면?' 이근호 선수 중거리 슛이 있었습니다.
6. '부라주카(공인구)에 만족하십니까?'에서는 그렇습니다. 라는 응답이 만장일치였습니다.
7. '부라주카가 색깔이 멋있고 정확도가 좋아서 좋다.' 라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8. '왜 만족하지 못하였는가?' 였는데 모두 만족이 나왔습니다.
9. '우리나라 현 성적에 만족하십니까?'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국가대표 팀이 더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 '국가대표팀에게 한마디 말'은 '16강을 못 가도 괜찮으니 열심히 뛰어주세요.'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1. '제일 좋아하는 국가대표 선수에게 해 줄 말은?' '열심히 뛰어주세요.'가 많았습니다. 10번에서도 열심히 뛰어달라는 말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그걸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12. '경기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은' 대부분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와 1:1상황에서 높이 찬 것이었는데

정말 아쉬웠나 봅니다.

13.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이번 다가오는 벨기에전에서 어떤 전술을 사용하실 것입니까?'에서 '마크를 많이한다.'가 많았는데 알제리전에서 마크할 때 허점이 있었는데 아쉬웠나 봅니다.

14. 알제리전 결과는 벨기에2:1한국이라고 예상 많이 하셨는데 1:0으로 졌습니다.

15. 응원메세지는 '파이팅! 대한민국.'이 많았습니다.



위의 설문 조사를 통해 월드컵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열심히 한 축구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지만 16강에 가지 못해서 아쉽고,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8강까지 진출하기를 바랍니다.

김승현 기자, 박상건 기자

만화로 그리는 세상

김지성 기자, 김지훈 기자



즐거은 놀이 소개

김지성 기자, 김지훈 기자

제기차기

우리 반에 제기가 많아서 친구들이 가끔 제기를 찬다. 그래서 제기차기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게 되었다.

제기의 기원은 중국에서 신라로 건너온 '축국' 놀이에서 찾을 수 있다. 제기차기의 놀이 방법은 서서 발로 차올리는 것으로 외발차기, 양발차기, 개척구(혈령이)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더 많이 찬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외발차기

양발차기

개척구(혈령이)

맛있는 음식이 가득

— 재밌는 요리대회 성황리에 열려



요리대회 결정하는 다모임

우리학교는 6월 13일 3~6다모임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하지 못하게 된 야영을 대신하여 요리대회를 6월27일에 하기로 결정 하였다.

3-6학년 모두 하기로 하였고, 조는 10조, 한 조에 7명씩 짜기로 결정하였다.

조별로 요리를 정하고, 재료를 정하여 학교에서 신청했고, 나머지 도구는 나누어 가지고 오기로 했다.

드디어 6월27일에 3,4,5,6학년 교실과 과학실에서 요리대회를 개최 하였다

1조는 토마아 피자, 크림 떡볶기, 2조는 오므라이스, 3조는 펜케익, 4조는 제육볶음, 5조는 잡채, 화채, 6조는 콜라 삼겹살, 7조는 화채, 오므라이스 8조는 비빔냉면, 웨지 감자, 9조는 라볶이, 10조는 닭튀김, 화채, 오므라이스를 하였다.

심사위원은 김보매나 선생님, 이정자 선생님, 주미라 선생님, 가은영 선생님, 원소연 선생님이 해주셨고, 심사 기준은 청결, 부상, 참여, 소란 50%, 맛 50%였으며 1등은 5조, 2등은 1조, 3등은 7조가 차지하였다.

1,2,3,4,5,6,7,8,9,10조 모두 열심히 하였는데 등수 안에 안든 조는 많이 아쉬웠을 것 같다.

요리대회를 마친 후 다같이 각 조 요리를 시식하였으며 맛이 아주 좋았다.

4학년 김지성 학생은 요리대회는 재미있었는데 치우는데 힘들었다고 한다.



김진섭 기자, 남승우 기자

글모음

가족과 같은 책 읽고 느낀점 쓰기

4학년 남승우

이 숙제는 나와 엄마만 하였다. 이유는 선우, 우주는 한글을 잘 못 읽고 아빠는 일을 갔기 때문이다. 책 제목은 '엄마 아빠가 생긴 날' 이었다. 그 아이의 엄마 아빠는 아이의 어릴 때 모습을 알려주었다. 입양한 거라고 할 땐 불쌍해 보였다. 이유는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기 때문이다. 끝나니 아주 감동적이었다. 엄마는 우리 어릴 때 생각난다면서 우리 사진을 우리랑 같이 보았다. 사진을 보면서 우리 집에 저런 장난감도 있고, 옛날 친구도 생각했다. 그 책 내용은 아주 좋은 것 같다.

4학년 남승우 어머니 김수진
'엄마 아빠가 생긴 날!'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책이 무얼까?' 생각하다가 선택하게 된 책인데, 의외로 너무 짧고 유아가 읽는 책이라 좀 망설였다. 하지만 책을 읽고 나니 그동안 잊고 지내 왔던 옛 추억을 생각나게 했다. 결혼을 늦게 한

탓에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아이인 승우를 만나게 되었던 그 시절이 생각났었다. 그때엔 너무나 간절했기에 승우가 나에게 와준 것조차 감사한 하루하루였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 바랄 것이 없었던 하루하루였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그때의 그 마음을 잠시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승우뿐 아니라, 선우, 우주 또한 처음 나와 만난 감격스런 날을 생각하며 지내야겠다. 나의 아이들에게 감사하다.

4학년 김지훈

엄마가 지성이와 나에게 책을 읽어 주셨다. 제목은 '말 해버릴까?'라는 책이다. 나는 다카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놀렸다고 친구들의 씨앗을 자기화분에 옮겨 심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내 생각과 비슷하고, 지성이도 내 생각과 비슷했다. 그리고 책을 엄마와 같이 읽은 느낌은 나는 엄마가 읽어주셔서 정말 좋았다. 왜냐하면 엄마가 실감나게 읽어주셨기 때문이다. 지성이와 나는 책을 읽고 나서 행복했다. 이유는 요즘에는 엄마가 책을 많이 안 읽어주셨는데 엄마가 실감나게 읽어주셔서 재밌었기 때문이다.